

연중 제19주일

제1 독서 : 1열왕 19,4-8

제2 독서 : 에페 4,30-5,2

복 음 : 요한 6,41-51

쉼 정 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요한 6,51).

강론

“판 단”

박종상 신부 / 옥봉 천주교회

사람은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찾아나선다. 이 과정 중 중요한 것이 많으나 한 가지가 판단이다. 곱고 추한 것을 구별하고, 옳고 그름의 척도를 갖는 것이다.

오늘 성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 척도를 살필 수 있으니, 첫째 사람의 판단과 둘째 하늘의 판단이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1열왕 19,4). 이 엘리야 예언자의 판단과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요한 6,5)라고 응성거리는 유대인의 판단은 대표적인 성서구절이다. 이러한 사람의 판단에 대하여 똑 같은 상황 아래서의 하늘의 판단을 성서의 말씀 그대로 옮기면,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고될터이니, 일어나서 먹어라”(1열왕 19,5-6)는 하느님 천사의 명령과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요한 6,48)는 예수의 말씀은 하늘의 판단을 보여준다.

이를 대비하건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본다. 죽음과 생명 내지는 소생이 그것이다. 결국 하늘의 판단을 좇은 엘리야 예언자는 주야 사십일을 걸어 목격지 호렙산에 이르렀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요한 6,56)는 말씀대로 성체 성사를 통하여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룬 자가 그 얼마이던가! 사도 바오로 역시 생명이 이르는 방법을 제시하신다. 너그럽게 따뜻하게 대함은 생명에의 초대이고 용서와 사랑의 생활 역시 그리하니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을 낚는다고 결론내린다.

그리스도교인은 이 세상 사람들이다. 이 뜻은 사도 바오로의 말씀대로 독설과 걱정, 분노와 고함소리, 욕설 및 온갖 악의의 판단을 내려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초대교회의 교부이신 안티오키아의 성이냐시오의 가르침이 있다. “그리스도교인은 그리스도를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는 자들이다.” 이를 잊어서는 안되겠다. 하늘의 판단은 인간의 판단을 앞서 있으니 말이다.

소리

“말세가 그토록 두려운가”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가던 오대양 사건이 4년 만에 관련자들의 의문투성이 집단자수로 뉴스의 초점이 돼 다시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누가 무엇 때문에 36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을까. 희생자들은 왜 가정을 버리고, 집단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변을 당했던 것일까.

검찰의 수사에서 오대양과 한강 유람선으로 유명해진 주식회사 세모와의 금전관계, 세모와 구원파라는 기묘한 종교단체와의 관계 등이 드러나면서 구원을 빙자한 사채 성격의 현금이 사건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었음은 이미 밝혀졌다.

개신교로부터 이미 이단으로 소외당해온 교파라 하더라도 것처럼 잔혹한 집단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는 구원파가 기독교의 한 종파로 자처하며 신도를 끌어들이는 저간의 사정은 모든 기독교 신자들에게 새삼 각자의 믿음을 성찰케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느님을 믿는가. 말세가 우리의 현실적 공포의 대상인가. 우리의 믿음에 광신적인 요소는 없는가. 특정한 종교를 갖지 않았으면서도 대의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서슴없이 버린 선인들도 많고 평범한 삶을 살았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움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다.

우리의 나약함에서 오는 두려움과 크고 작은 죄가 없지 않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죄사함을 기구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구를 주님은 들어주신다. 이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죽음이나 말세가 두려울게 무엇인가. “정말 잘 들어두어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요한 6,47). **쉼**

쉼정이 산책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 승천 대축일을 맞이하여

“성모 마리아”

— 마리아께 대한 올바른 신심과 교리 —

산세가 좋고, 맑은 물이 나오며 성모상이 있으면 무슨 기적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리고, 미사중에 열심히 묵주기도를 바치는 걸 보면 뭔가 성모님께 대한 잘못된 신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는 15일 성모몽소승천 대축일을 맞이하여 성모님께 대한 올바른 신심과 몇 가지 교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천은 마리아의 육신과 영혼, 즉 마리아의 인격이 전적으로 부활한 그리스도와 일치함을 뜻한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려 오셨고, 구원이 하느님과 일치라고 한다면, 또 마리아의 온전한 구속을 믿는다면, 인간의 구원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에 마리아의 승천, 불리 올림, 현양은 당연하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목표인 구원을 자기 안에서 이룬 인간이다. 물론 이것은 온전히 하느님의 은총이지만 하느님의 은총, 즉 천상 영광으로 불리 올리심을 받은 성모 마리아는 완성될 당시 교회의 첫모상으로 우리에게 희망과 영생과 부활을 보증해준다. 또한 마리아의 현양은 구원을 위한 하느님 사업, 즉 구세사에 동참한다는 의미이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며 종말에 이룩될 교회 현양의 보증이다. 이렇게 초대교회(3C) 때부터 신자들이 믿어온 바를 1950년 11월1일 교황 비오 12세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이었던 하느님의 모친 마리아가 지상의 생애를 마친 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 영광에 들어 올림을 받았다는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계시된 신앙의 진리이다.” 이 축일은 8월15일이다.

* 성모님께 대한 올바른 신심

교회 축일표에 나타난 성모 축일(대축일과 기념일 포함)은 연중 15번 이상이고, 매주 토요일은 특별한 축일이 아니면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를 기념하여 미사를 지낼 수 있다. 이렇게 교회 축일표에 성모님께 대한 축일이나 기념이 많이 나오는 것은 마리아께 대한 개인적인 신심보다는 교회전례(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에 나타나는 마리아 공경을 권장하기 위함이다.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께’라는 교회의 공적인 표현처럼 우리의 목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임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볼 때 마리아께 대한 올바른 신심은 하느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은 인간, 인류의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 구원사업의 제일 협조자로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온전히 구속된 분으로서 마리아의 성덕을 본받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 즉 하느님을 향한 마리아의 열정과 사랑, 믿음, 겸손, 가정, 일상의 평범한 일에서의 성화 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리아처럼 사는 것이다.

*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천주의 모친’이란 칭호는 이미 3세기부터 쓰여졌고 에페소 공의회(431년)에서 마리아께 대한 교회의 공적 신앙으로 선포되었다. ‘천주의 모친’이라는 칭호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로서 성부와 동일한 신성을 지닌 만큼 마리아는 하느님의 모친이 된다. 1월1일을 이 축일로 지낸다.

* 성모의 원죄없으신 잉태

이는 마리아가 잉태 첫순간부터 하느님께서 섭리하신 특전으로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시기에 적합하도록 원죄의 아무 흔적도 받지 않았다는 신앙도리이다. 마리아가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는 신심은 8세기부터 시작되다가 1854년 비오 9세 교황에 의해 신앙도리로 선포되었고, 12월8일을 축일로 지낸다.

* 성모몽소승천

성모의 승천은 ‘부르심을 받은’ 승천이란 의미를 지닌 ‘몽소’(夢召)승천이라 부름으로써 예수 승천과 구별된다. 성모몽소승

* 중개자이신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신앙 및 그리스도와와의 일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속활동에 가장 탁월하고 완전하게 참여하고 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승천 후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인류 구원에 이바지하고, 자신의 전구로써 구원의 은총을 얻어 주기 때문에 교회는 마리아를 변호자, 보조사, 협조자, 중개자로 불러왔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원사에 있어 마리아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깨우쳐주고, 그리스도를 향한 마리아의 삶을 본받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하라 컴퓨터학원

1인 1대의 철저한 개인 교육으로 여러분을 새로운 컴퓨터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조영애 대표

송천동 비사벌APT 입구

☎ 75-5777

양재·한복·홈션
노라노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 (대리안드레이)
동부시정관·민정당시원
☎ 86-2715
* 냉난방 완비

관인 다예미술학원

방학특강
아동 미술 전문 학원
원장과 아동 미술 전문 교사 지도
박경화(마리아)
효자동 목화APT 사거리
☎ 223-8355

신동이화재자동차보험
어양대리점

대표 김홍규 (안드레이)
자동차,운전자 복지,화재,교육
사무실 : (0653) 52-3045
전북은행 마동지점 앞

잡 관 /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

1945년 8월15일, 이 날은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 참으로 감격스런 환희의 날이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우리는 단장(斷腸)의 슬픔을 맛보아야만 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찾은 해방이 아니었기에 완전히 독립할 수 없었고, 우리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허리가 동강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46년! 동서가 화해하고 세계가 하나되는 이 시대에 왜 우리만 유독 분단과 수치의 역사를 살아야만 하는가? 이제는 우리도 좀 깨어나야 한다.

일마 전만 해도 투철한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북한과 철저한 반공교육을 받은 남한이 하나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그것은 고르비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 정책 이후 동서독이 통일되고 동구권이 변화되면서 세계가 하나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미·소 정상이 만나 핵무기를 감축하기로 결정했고, 미국이 핵정책에 발언권이 없던 우리 정부에 북한이 제안한 한반도 비핵지대화 방안에 대해 북한과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협정권을 인정한 일련의 조처들은 통일을 앞당기는 전조임에 틀림없다. 그뿐이 아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북한에 성당이 세워지고 몇 차례 교류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과 통일의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았는가? 이제 중요한 것은 2년 전 8월15일 군사 분계선에서 무릎 꿇고 “분단으로 인한 미움도 증오도 우리들로서 사하게 하여주시고, 우리를 제물로 삼아 통일을 열어주소서” 하고 기도했던 임수경 양과 문규현 신부처럼 조국의 평화와 민주,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일이다.

교 구 소 식

※ 전주교구 중등교육자회 연례피정 : 8월15일(목) 9시-16시 가톨릭센터 3층 강당
대상-전주·완주지역 중등교직원 전원, 준비물-미사도구.

1. 축! 견진 : 8월18일 오전 10시 무주 성당.
2. 원고 모집 : 주제-현대의 순교, 원고지 5매 이내, 마감-8월19일까지, 접수처-홍보국.
3. 가톨릭 사진동우회 성지사진촬영대회 : 8월18일 오전 6시30분 가톨릭센터에서 출발, 장소-절두산, 회비-10,000원, 대상-회원·관심있는 분, 문의·접수-홍보국.
4. 교도소 사목후원회 월레미사 : 8월12일(월) 오전 10시30분, 교구청 별관1층.
5. M. E. 소개모임 : 8월17일(토) 오후3시 가톨릭센터 3층 M. E. 사무실.
6. 제2회 성가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 8월19일-20일, 강사-이종철 신부, 장소-나바위 성당, 회비-15,000원, 19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에서 출발.
7. 생명 공동체 운동 강좌 : 8월12일(월) 오후2시-5시 가톨릭센터 3층, 회비-1,000원.
8. 자연법에 의한 가족계획 교육 : 8월13일(화) 오전10시30분, 대상-임신·피임을 원하는 분, 교구청 별관4층 행복한 가정운동 85-5098.

- [성소모임] 인보성체수도회 : 8월11일(오늘) 오후1시 본원(0652)84-3231.
전교가르멜수녀회 : 8월18일 오후2시 서신동 성당 수녀원(0652)74-9262.
성바오로딸수도회(피정) : 9월1일 문의-성바오로 서원(0652)252-3398.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참조 질서 보전-(물 3) 세차시의 물 절약

세차시에 사용하는 물은 차를 닦을 때보다 그냥 바닥으로 흐르는 양이 더 많다고 합니다. 물통을 사용해서 비누칠을 한 다음 고무호스를 사용하여 뿌리는 것이 효과적이며 가급적 세차를 적게 하여 물을 아끼십시오.

제주피정(피정 및 관광)
* 2박3일 과정, 3박4일 과정
* 9월 3회, 10월 3회
* 장소: 제주시 '형제의 집 피정센터'(한국순교복자수도회)
서울 (02)516-3404, 548-7095
중부 (0431) 52-8559

우리전투
모범업소(조리사의 집)
발성환(조리사)
김성숙(엘리사벳)
전주시 서노송동 432-11 중앙성당앞
☎ 85-8848

신부 부케 전문점
진선미꽃집
이미리아
범디도
☎ 84-2628



새성전 은인 구할
송학동 새성전에 필요한 비품 은인을 찾습니다.
1. 제대벽화(노레스코화) : 500만원
2. 제단(노레스코화) : 200만원
3. 창호지화(창문) : 200만원
4. 감실(노레스코화) : 100만원
5. 감문대(노레스코화) : 100만원
6. 기타
송학동 성당
문의 (0658) 841-9713(사무실)
51-5340(사제관)

여사무원 채용
대상: 영세한 지 3년이상 미혼녀
제출서류: 자필 이력서 1통
자격: 고졸 이상
전주교 주현동 교회
☎(0653) 855-3993

공인 중개사 송영은(돈보스코) 사무소
☎ (0652) 87-0088
(자택) 83-0087, 83-0088
호출기 012-681-7220
토지, 임야, 주택, 상가, APT
전세 매매 알선

고급 신사복 귀빈양복점
가톨릭센터 동편 사거리
전북은행 노송지점 옆
(85-8809, 87-4635)
한루가(봉석)
김테레사(인숙)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승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보좌신부 82-9661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 목 성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 승 남

1. 성모승천 대축일 ㉞: 15일 전5시30분, 전10시, 후7시30분 미사만 있음. 2.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 행사에 협조해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세례식: 14일 후7시. 4. 장우회: 만60세이상 남성으로 결성 예정이오니 사무실에 접수 하시기바랍니다. 5. 꾸리아: 오늘 후2시. 6. 부녀회 상임위원회: 14일 어머니 미사후. 7. 재속형제회: 17일 후2시. 8. 교무금 및 주일헌금에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바랍니다. 9. 하루에 한가지씩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10. 금주정소: 인후7·9반. 자주정소: 인후10·11반.

□ 지난주 봉헌금: 916,850(공소포함) □ 교무금: 828,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 일 군

1. 꾸리아: 오늘 오후2시.
2. 오세회 단합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청년회: 오늘 저녁미사 후.
4.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15일 주일과 같음.
5. 부녀회: 15일 오전10시. 6. 성우회: 18일 공식미사 후.
7. 예비자 교리: 매주 일요일 오전9시.
- ※ 성당청소: 17일 다위의 탑Pr, 사도의 모후Pr.
- 금주전례: 해설-정현자 독서-안병주씨부부 봉헌-박복순씨가족
성모승천대축일: 정승훈 독서-랑재섭씨부부 봉헌-조종업씨가족
자주전례: 해설-오교성 독서-강세환씨부부 봉헌-김동수씨가족

□ 지난주 봉헌금: 495,370원 □ 교무금: 831,6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 종 석

1. 꾸리아: 공식미사후. 2. 청년회, 성가정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성서읽기: 로마1장~8장. 4. 청소봉사: 신비로운 장미.
5. 장년회: 17일 저녁미사 후.
6. 영세식: 첫영성체-15일 공식미사 중.
7. 금주 전례: 해설-김영선 독서① 이옥동 ② 김연순
봉헌-유순천, 유춘근 씨 부부
성모승천축일: 해설-송봉덕 독서① 양주태 ② 이석남 봉헌-영세자.
차주 전례: 해설-이승복 독서① 문영호 ② 송정자 봉헌-이명수, 하일봉 씨 부부
8. 본당의 날 행사: 15일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248,510원 □ 교무금: 424,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오늘은 연중제19주일!

1. 회의: ① 프란치스코3회-오늘 오후2시 ② 성심회-13일(화) 오후2시. 주(목) 후8시.
2. 모임: ① 울뜨레아-8월14일(수) 저녁미사 후 ② 전례부-다음
3. 알림: ① 예비자종합교리 및 영세식이 연기되었으니 양해바랍니다.(일정은 아직미정임).
- ② 봉성체-다음주 수요일
- ③ 8월15일(성모승천) 축일미사시간-오전10시30분, 오후8시
- ④ 청년성가대원모집-매주일 저녁미사 후에 성가 연습이있으니 뜻있는 젊은이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 ⑤ 꾸르실료수강-김영곤(요한보스코), 강경호(음) 형제님(8월~11일).

□ 지난주 봉헌금: 567,750원 □ 교무금: 190,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축 첫영성체 및 영세!

1. 성모승천 대축일미사: 9:00, 10:30.
2. 첫영성체 및 영세식: 9:00 미사중에 있습니다.
3. 8월12일 북사단 전례단 설치순례: 장소-나바위 성지, 출발시간-10:00, 준비물-목주, 도시락, 수영복.
4. 청소봉사: 주공3단지 동편.
5. 고백성사안내: 매주 화요일, 목요일 8시미사 30분전에 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540,530원 □ 교무금: 773,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강 명 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득 수

- ※ 성전보수헌금바람. 1. 자모회: 오늘 오전10시.
2. 사목회: 오늘공식미사 후. 3. 돈모소교회: 14일(수) 저녁7시.
4. 구역반장모임: 8월14일(수) 오전11시.
5. 축, 꾸르실료수료자 탄생: 노병섭(프란치스코), 이명행(요셉), 소영준(다두).
6. 성모몽소승천 대축일미사: 오전5시30분, 10시30분, 오후7시30분 미사의무가 있습니다(8월15일).
7. 임진각통일염원미사: 16일(금) 화비-일만원, 사무실에 신청. 8월16일 저녁미사 없음.

* 금주보수비현금액: 40,000 * 현재모금총액: 240,556,691
* 금주보수비신입액: 없음. * 현재신입총액: 253,119,618
□ 지난주 봉헌금: 1,439,96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 광 탁

※ 성모승천 대축일 ㉞: 15일 이날은 전신자 의무축일.
미사-전6시, 전9시, 전10시30분, 후3시(어린이), 후7시30분.

1. 성모승천 대축일 맞이 성당 대청소: 14일 어머니미사 후.
2. 성모승천 대축일 준비 고백성사: 14일 전9시~2시, 후3시.
3. 축! 남설 제39차 꾸르실리씨따 탄생: 서정희, 송영은 형제.
4. 평화 M, E가족 모임: 11일 공식미사 후, 부부당-10,000원.
5. M, E(35차) 갑습회: 16일~18일, 이충원, 지동호, 장요셉수녀.
6. 축! 평화셀 100차기념 공개셀 회의: 18일 후4시.
7. 교도소 사목 후원회 월례미사: 12일 전10시30분, 별관1층.
8. 회의: 자모회-어머니미사 후, 청년회-다음주일 후5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609,100원 □ 교무금: 534,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 영 근

1. 사목회·성모회: 오늘미사 후.
2. 청년회: 오늘미사 후(임원 선출이 있습니다).
3. 반모임: 13일(화)-오전10시반: 화산2(B), 오후2시반: 평화·성원, 오후8시반: 삼정 14일(수)-오전10시반: 금화·송원, 오후2시반-화산2(A).
4. 자모회: 다음주일 미사 후.
5. 청소봉사: 자비의 모후Pr.
6. 금주 전례: 한병갑 독서·봉헌: 노시연, 이창욱
차주 전례: 장병순 독서·봉헌-유미나, 신동섭.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 종 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 수 현
사목회장 황 수 석

※ 연중제19주일.

1. 울뜨레아: 오늘11시미사 후.
2. 글라리아: 수요일 오전10:30.
3. 모니카회: 21일(수) 오전10:30.
4. 데레사회: 21일(수) 오전10:30.
5. 꼬미씨울: 24일(토) 오후3시.
6. 성모 승천 축일: 15일(미사는 아침6시, 11시, 저녁7시).

□ 지난주 봉헌금: 1,059,940원 □ 교무금: 2,215,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 흥 두

1. 울뜨레아: 공식미사 후. 2. 한나회, 오세회 단합대회: 12(월) 오전9시.
3. 영세식: 13(화) 저녁8시. 4. 성모승천 대축일: 주일미사와 동
5. 남북통일기원미사: 16(금) 오전7시출발 장소-임진각 승차권은 오늘까지 90명 선착순 판매.
6. 8월은혜의 밤: 8월16일(금) 오후10시~17일(토) 오전4:30, 조경장사-이영태(바로) 회장-서울가나안 성령봉사회장, 성모기사회전국회장. 자주모임: 사목회.
- 신축헌금총신입액: 98,110,000원 봉헌액: 240,000원.
금주 전례: 해설-강진상 독서① 함영철 ② 전신자 기도① 김인원 ② 임순덕
차주 전례: 해설-김광년 독서① 심학섭 ② 김정희
기도① 김세중 ② 이종호.

□ 지난주 봉헌금: 947,460원 □ 교무금: 934,000원